


| | | | |
|---|-------------------|----|--------------------------|
|  제주발전연구원 | 보 도 자 료 | 담당 | 산업경제팀 |
| | 2009년 12월 9일(수요일) | 연락 | 강승진 연구위원 011-639-6391 |

오키나와 비교 벤치마킹을 통해 주변지역과의 적극 적인 소통과 발전 모색 필요

- 제주발전연구원 “섬지역 산업·경제 비교분석”연구에서 제언

-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경험, 문화형태 등 여러 면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는 일본의 오키나와현의 산업·경제구조와 비교·분석 자료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 제주발전연구원은 섬지역 산업·경제 비교 분석이라는 현안연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오키나와현의 산업·경제구조와 비교·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 ▶ 자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관광 등 산업부분의 발전전략도 기본적으로 문화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발현될 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음. 따라서 전통문화와 의식구조 등 지역 정체성이 발전전략의 근간이면서 동인이 될 수 있도록 현대적으로 재창조하고 고양하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장수문화와 음식문화, 생활문화 등의 연계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함께 이를 지역 브랜드화하고 관광 등 여러 측면에서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와 오키나와현의 산업구조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 제주지

역은 금융·보험·부동산업, 개인서비스업, 건설업, 농산물업, 기타공공서비스업 순이지만, 오키나와는 기타공공서비스업, 건설업, 금융·보험·부동산업, 개인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으로 산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산업 비중의 차이가 가장 큰 산업부문은 농산물업으로, 제주지역은 10.3%인 반면 오키나와는 1.5%에 불과함. 오키나와의 농업은 구조적인 개선의 가능성이 매우 열악하며, 광범위한 섬지역의 농업을 근대화하는 정책수단 역시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향후 오키나와 농업은 일본 본토와의 격차를 해소하고, 일본 내 농업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오키나와의 특수한 농업진흥 유형”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이와 같이 특이하게 진행되고 있는 오키나와 농업 진흥정책에서 제주 농업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본다면, 첫째, 제주농업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특별한 진흥정책을 제도화함으로써 시장규모의 취약성, 본토 시장과의 연결을 위한 경제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임. 둘째, 제주의 자연 환경적 여건을 유지하기 위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발휘를 위한 각종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즉, 제주농업의 특수성을 찾아내어 이를 근거로 한 특별한 지원책의 제도화를 통해 제주농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개방화 대비 제주농업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임.
- 제주지역경제의 산업구조가 세계적 산업변천사에서 예외가 될 수 없고 제주 지역 경제와 지리적, 경제적 여건이 비슷한 오키나와 경제의 산업구조로 이행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산업변천사에 순응하는 산업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즉, 서비스 산업의 투자확대를 통하여 3차 산업을 육성하고 농어촌의 유휴인력을 서비스 산업분야로 순조롭게 이동시켜야 됨.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새롭게 정비하고 교육시스템의 개혁을 통하여 산업재편에 상응하는 인력을 공급하고 기성세대의 재교육을 확대해야 함.

- 오키나와 경제의 예에서 보았듯이 1차 산업 또는 3차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2차 산업의 업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2차 산업의 육성은 제주지역 경제의 안정을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임. 장수마을과 연계성 높은 2차 산업 육성이 그 예가 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일촌일품운동, 마치노에키(道の驛), 중소기업지원시스템, 특별자유무역지대 등의 오키나와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관광산업 측면에서는 제주와 오키나와 간 독특한 자연·역사·문화, 관광산업의 입지, 관광객 수 등에서 유사성이 있음. 차이점으로는 기후와 계절성, 관광자원개발 성격, 항공사 및 여행사의 영업전략 등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오키나와는 관광객 수의 양적 증가에 비중을 두는 양적 성장보다는 관광객의 평균 체재일수, 1인당 관광객 평균 지출비용, 관광객 만족도 등을 중시하는 질적 성장에 비중을 두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개선방안 및 개발전략으로는 동북아 MICE산업의 중심지 제주와 인재양성사업의 내실화, 융·복합산업으로의 관광산업 발전, 스포츠산업과 관광의 연계 강화, 관광객의 요구와 욕구에 부응하는 제주 관광의 다양성 확보, 지역문화가 어우러지는 문화클러스터 구축 등을 들 수 있음. 또한, 오키나와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성을 반영한 상품개발, 공동연구를 통한 시설·장비·설비 등 부족의 한계 극복, 목표대응형 연구개발, 평가시스템의 구축 등이 요구됨.
- 장수산업 분야에서 오키나와와 제주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전통적인 장수문화의 요체로서의 조화롭고 소박하며 수용적인 동양적 삶의 철학이 젊은 나이로 올수록 점점 쇠퇴해 가고 있는 점임. 또한, 서구적 식생활 문화의 도입으로 장수의 핵심 비결인 전통적인 장수 식생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고 있으며, 심지어 기피하고 있음은 심각한 장수문화의 저

해요소가 될 수 있음.

- 하지만 오키나와는 고유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세계적 장수의 섬으로서 전통적 문화와 장수의 이미지를 심분 활용하여 관광과 연계하여 많은 경제·산업활동을 성공적으로 영위해 나가고 있음. 따라서 제주의 미래 발전의 중요한 핵심 추진과제로서 장수의 섬 제주의 특성적인 장수문화를 사회·경제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학 삼자가 연대하여 문화컨텐츠사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함.
- 민간부문에서는 전통장수문화의 배경이 되는 제주의 정신문화를 고취하는 정신문화운동이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함. 학계에서는 제주가 장수식품으로 개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식물자원과 해산자원이 거의 무한정으로 존재하는 곳인 점을 감안하여 의약학, 식품영양학, 생명공학, 해양학, 동식물자원학 등의 학문분야에서는 건강장수 관련 식품과 의약품의 새로운 연구와 개발에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해야 함.
- BT산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제주지역도 장수와 연계 가능한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바로 연상되는 현장체험 형식의 1·2차 산업이나 외식산업과 연결되는 1·3차 산업을 창출할 필요가 있을 것임. 즉, 우리의 좋은 물을 이용하여 만든 제주산 주류 등 발효식품과 청정이미지를 갖는 생물산업 결과물을 관광과 연계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